



오랜 의정 생활을 해오는 동안 변함없이 내 자신에 대해서 던져오는 충고가 있다. 나 자신의 육체가 강건하지 못하면 절대 국민들의 성실한 공복(公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무엇보다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자리에 누워있고 싶은 달콤한 유혹과 싸울 시간에 나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하루를 연다. 그런데 이런 새벽의 움직임은 다만 운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새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정겨운 풍경을 보면서, 새벽의 시간을 활기찬 움직임으로 깨우는 배달부들의 모습에서 나는 한국의 희망을 느낀다. 그러나 희망의 빛이 보다 아름답디 비추어져야 할 곳이 마음 한 구석에서 떠나질 않는다.

시에는 배 군의 모습에서 그저 소박하고 순수한 청년이라는 생각 밖에는 하지를 못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많은 좌절과 낙담,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까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듯한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했으나,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로 본인들에게는(刻苦)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인지는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절감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와중에 TV에서 방영된 그 영화는, 보고 나서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일반적인 감동을 마음속에 묻어두고서 자리를 뜰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극중의 초원이 어릴 적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을 뻔 했으며, 또한 다른 일반인들과 적응하는데 실패하면서 느끼는 좌절감이나 모멸감을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로 껴안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소망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석현
(열린우리당, 안양 동안 갑)

예전엔 취미삼아 영화관도 자주 찾곤 하였던 나였지만, 요즘은 국민의 고충을 찾아다니고 많은 이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법안을 발의, 검토하다 보니 마치 쏟아놓은 화살처럼 지나가 버리는 시간 속에서 그와 같은 여유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간만에 TV를 켜 보았더니 마침 영화를 방영해 주어 보게 된 영화가 바로 '말아톤'이었다. 영화 속의 실제 주인공인 배형진 군은 내가 작년 장애인의 날 시상을 하고 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당

는 물음이 나의 마음을 때렸다. 더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나로서는 그 메아리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극중의 초원의 어머니나, 실제 배 군의 어머니나 내가 느끼는 모습은 똑같았다. 바로 남들이 바라보듯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편견의 벽을 넘어 일반인만큼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그네들의 지식을 일구어낸 모습이었다.

어렵고 험난해 보이는 일이라도

모두가 소망하고 힘을 합친다면

어제까지도 망상에 가까웠던 일이

바로 오늘 기적이 되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연이어 들려와 매우 반갑게 느껴졌던 올 해였다. 올해 9월에는 체코에서 열린 세계장애인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자폐아 김진호 군이 금·은·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이제 장애인들도 충분한 잠재력의 소유자이며, 그들은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어떤 자세를 갖추어 그네들의 목소리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느냐에 따라 장애인들의 능력과 잠재력이 십분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을 反芻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잡지에서 읽었지만, 김 군의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도 내 예상과 다른 것이 없었다. 김 군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으며, 자폐아라 하여 결코 남보다 처진 살라는 법은 없다는 굳은 의지와 믿음으로 김 군에 대한 끊임없는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던져졌다. 이 어머니들의 믿음과 시각이 다만 이 어머니들만의 몫인가? 이제는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더욱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러한 굳은 믿음을 서로 나누어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불구자라도 노력하면 된다고 설파했던 헬렌 켈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여러분이 정말 불행할 때, 세상에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타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한,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장애인을 위한 많은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고,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그리고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소망을 담은 법안들이 입법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장애인들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헬렌 켈러의 말처럼 장애인들에게도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들의 자리가 있음을 일깨워 주는 일일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네들의 어머니만의 몫은 아니라고 본다.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들이 많지만, 사회 발전을 위하여 계발할 수 있는 여러 잠재력을 그냥 묵혀놓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까닭에 아직 금으로 단련되지 못한 原石처럼 우리 사회의 군데군데에 있어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제 이전과는 다른 관심이 필요함을 절감하는 요즘이다.

가끔 국회 내의 의원 동산을 산책을 할 때 마다 저 멀리 강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주변의 나무들이 주는 상큼함,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분명 우리 사회가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리라는, 그리고 수많은 장애인들과 빈곤층에게도 희망의 빛이 드리워지리라는 나의 믿음을 운택하게 해 준다. 이제 이러한 나의 믿음이 나만의 것이 아닌, 보다 많은 국민들과 공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간다.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 어렵고 험난해 보이는 일이라도 모두가 소망하고 힘을 합친다면 어제까지도 망상에 가까웠던 일이 바로 오늘 기적이 되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은 보건복지위원장직의 자리이지만 남은 기간만큼 최대한 장애인의 인권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몸쓸 병에 걸렸어도 치료비가 넉넉하지 못하여, 희귀병에 걸려 제대로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많은 이들의 사연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아직까진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원대한 상상을 품어 본다. 모두가 건강한 한국이 될 수 있도록. 